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Manna of Choonghyun

충현의 만나 대학부

3

2014
March



인간의 타락과 구원

1과 · 하늘로부터 흐르는 긍휼 누가복음 22:19~20

2과 · 두 종류의 제사 창세기 4:1~7

3과 · 두 종류의 죽음 창세기 4:8~17

4과 · 여호와 앞을 떠나서 창세기 4:16~24

5과 · 다른 씨 창세기 4:25~5:3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충현의 만나 대학부



2014
March

인간의 타락과 구원

1과 · 하늘로부터 흐르는 긍휼 누가복음 22:19~20

2과 · 두 종류의 제사 창세기 41~7

3과 · 두 종류의 죽음 창세기 4:8~17

4과 · 여호와 앞을 떠나서 창세기 4:16~24

5과 · 다른 씨 창세기 4:25~5:3

성찬은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칠성례를 주장하지만 성경에서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의식은 세례와 성찬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성찬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살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의식이며, 성령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고전 11:25 _____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떡과 잔을 대할 때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을 부주의하게 참여하는 자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전 11:27 _____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자비와 긍휼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자비를 분명하게 드러내신 긍휼의 식탁이었습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주께서 친히 만드신 거룩한 의식입니다.

눅 22:19~20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 □□□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 □□□ 붓는 것이라

그분의 고난과 희생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고후 8:9 _____

또한 성찬은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실천적 사랑을 보여 줍니다. 우리 주님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을 통해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요일 3:18 _____

우리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당신의 참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드리는 헌신

그리스도로부터 사랑과 긍휼을 받은 자들이 드려야 할 합당한 반응 중에 첫째는 경배와 감사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주님께 부어 드린 여인처럼 우리 자신을 깨뜨려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십니다.

막 14:3 _____

롬 12:1 _____

그리스도로부터 사랑과 긍휼을 입은 자들이 드려야 할 합당한 두 번째 반응은 그분의 긍휼하심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긍휼에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께로부터 받은 긍휼을 다른 이들에게 흘러 들어가도록 긍휼과 사랑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특권 의식에 갇혀 자랑만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천국 문을 막는 어리석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요일 3:10 _____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분의 긍휼을 전하는 일은 무엇을 뜻하는 것 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삶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갈 4:19 _____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고 본받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 아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닮아가도록 기도하며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서 겪어야 할 고난과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길 바랍니다.

골 1:24 _____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십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마귀는 우리를 고소하지만 어린 양의 보혈, 곧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케 하며 우리를 지켜줍니다.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는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출 12:23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가정은 지나치시고, 천사들에게도 그 집을 멸하지 말고 그냥 지나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심판과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지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거룩한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즉 성찬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이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시기 위해 제정하신 거룩한 의식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분의 공훈과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과 공훈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동시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최선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

- ① 성찬을 통해 주의 공훈과 자비를 깨닫게 하소서.
- ② 사랑과 공훈의 삶을 실천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소서.
- ③ 충현교회 대학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소서.

2

주간총회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두 종류의 제사

초 점

가장 완벽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

본 문 창세기 4:1~7

- ❶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 ❷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 ❸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 ❹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 ❺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 ❻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나
- 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전에도 희생적인 제사의 원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 옷을 만들어 주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들의 허물과 수치를 덮여주기 위해서 다른 짐승의 희생과 피흘림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구속제사의 원형적 제사이며,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 3:21 _____

아담과 하와는 동침하여 가인을 낳았고, 이후 아벨을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에 의해서 드러진 두 종류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에 대하여 다르게 살아가는 두 부류의 신자들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가인과 그의 제사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입니다. 그는 저주받은 땅을 갈며 수고하고 땀흘려야 소산을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아버지 아담이 하던 일을 그대로 물려 받았 습니다.

창 3:23 _____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 한 것은 그의 제물이 여호와 하나님께 열납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 엇일까요?

아벨은 양을 바쳤고,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벨은 첫 것을 바쳤는데 가인은 '처음 것'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창 4:3~4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 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와 그 ☐☐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 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거절된 가인과 그의 제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반드시 그의 삶 자체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 자체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였기에, 하나님은 그의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 자체도 받으셨습니다.

창 4:4~5 여호와께서 □□과 그의 □□은 받으셨으나
□□과 그의 □□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은 자신의 제물이 열납 되지 않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작 자신이 하나님을 함부로 여겼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분을 내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의 분노는 곧 다른 사람을 향한 범죄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인의 분노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창 4:6~7 _____

죄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죄를 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를 억제하고 참지 못하면 결국 큰 범죄를 낳게 됩니다. 내면에 있는 것과 말로 나오는 것과 또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면의 죄를 억눌러서 다스리라고 경고하십니다. 마음에 죄의 생각이 들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사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가 왜 목축업을 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아담의 직업을 계승하지 않고 목축업을 택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족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양을 치는 직업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첫 것을 드렸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면서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히 11:4 _____

예물 그 자체가 믿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드리는 예물은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와 삶을 증명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어렵듯하게나마 알고 있었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삶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과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고후 9:7 _____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아벨은 가인보다 좋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이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 역시 완벽한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며 완벽한 제물과 제사를 드러내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가 다 그러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아벨보다 더 나은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히 12:24). 자신이 제물이 되어 단 한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반복적인 제사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분의 제사는 완벽하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히 7:27 _____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삶의 제물이 되도록 마음을 다해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롬 12:1 _____

믿음의 기도

- ❶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 ❷ 완벽한 제물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 ❸ 충현교회 대학부가 십자가의 복음 위에 더욱 굳게 서게 하소서.

에게 이르시되 구덩이 아래에서 가인을 죽이고 그의 몸을 밭에 묻어라 하시니 가인과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¹⁶⁾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¹⁷⁾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
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거부당한 가인은 마침내 아우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형제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부패하였고 타락하였음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조차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시 51:5 내가 중에서 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가인은 마음의 악함을 멈추지 못하고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는 악한 자 사탄에게 속하여 결국 의로운 자 아벨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사탄에 속한 자녀들은 언제나 은혜 아래 있는 자녀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에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요일 3:12 _____

가인의 계획적인 살인과 거짓

가인은 그 아우 아벨에게 먼저 말을 걸어 들로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벨을 처죽였습니다. 그는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살인하였습니다.

창 4:8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그들이 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처죽이다’라는 말은 가인이 매우 공격적으로 아벨을 죽였음을 보여 줍니다. 그는 아벨을 죽일 인적이 드문 장소까지 계획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계획은 거의 대부분 계획적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과 가인의 대답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장면을 보셨지만,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진실된 대답을 듣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에게서 후회나 회개의 마음이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질문에 불만스런 말투로 대꾸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 속하여 양심을 저버린 것입니다.

요 8:44 _____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과 가인에 대한 심판

하나님은 가인의 악한 행위를 추궁하셨습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행위는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자연만물이 알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창 4:12 _____

안식의 처소인 땅이 이제는 유리하며 방황하는 삶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비참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가인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얻었음에도 끝까지 완고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잠 28:13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 하지 못하나 죄를 ☐☐ 하고 버리는 자는 ☐☐☐ 여김을 받으리라

가인, 악한 자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위로

가인은 죄의 대가와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동생에게는 무자비했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창 4:14 _____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기적인 간청에 대하여 자비하심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창 4:15 _____

하나님은 아무리 심각한 죄인일지라도, 자비를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인자의 생명조차도 귀히 보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의 생명도 함부로 여길 수 없습니다. 가인에 대한 복수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선언은 생명을 함부로 여기고 살인했던 가인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반복된 하나님의 죽음

아벨의 죽음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인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최후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게 됩니다. 사실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분노를 하나님께 속한 아벨에게 쏟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에게 속한 자들의 마음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요 1:11 _____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달랐습니다. 아벨의 죽음은 악인에 의한 불쌍하고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는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가장 불의했던 죽음이었지만 결국 가장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준 죽음이었습니다.

요 19:30 _____

믿음의 기도

- ❶ 넘어져더라도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돌아가게 하소서.
- ❷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음으로 보게 하소서.
- ❸ 충현교회 대학부가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초 점

아버지 품을 떠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본 문 창세기 4:16~24

- ¹⁶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늦 땅에 거주하더니
¹⁷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¹⁸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므후야엘을 낳고
 므후야엘은 므드사엘을 낳고 므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¹⁹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쉴라였더라
²⁰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²¹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²²쉴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²³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쉴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²⁴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 배이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과 몸이 떨어진 가인은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자신들만의 성을 쌓으며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곳에 참된 평안과 안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렘 29:11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요
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와 을 주는 것이니라

요 14:27 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없는 문명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 이후로 이랏, 므후야엘, 므드사엘, 그리고 라멕에 이르는 지속적인 생육 과정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본래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원리는 일부일처제인데 말입니다.

창 2:24 _____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 두 사람이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라멕은 하나님의 선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일처의 문화 속에서도 불륜과 간음 그리고 동성애와 같은 왜곡된 형태의 성적 타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도시의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성적 타락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십시오(창세기 19장 4~8절 참고).

※ 오늘날의 왜곡된 성문화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1. _____
2. _____
3. _____

문명의 발전

※ 하나님 없이 그들은 일반 은총 가운데 자신들의 재능을 백분 활용하여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각 사람이 발전 시킨 분야를 적어 보세요.

· 야발 _____

· 유발 _____

· 두발가인 _____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빠른 문명의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19세기 초 영국의 산업 혁명과 함께 세계는 급속도로 발전하였습니다. 과학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 없이도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철학자들은 신은 죽었다고 외쳤고, 신학에서도 하나님의 역할은 축소되었습니다. 복음은 사회 변혁을 위한 사회주의적 복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인간과 문명의 진보에 대한 낙관론은 철저히 고개를 감추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문명의 발전은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완성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초월적으로 완성하십니다.

계 21:1 _____

계 21:4 _____

하나님 없는 사회

라멕은 소년과 다투다가 소년을 죽입니다. 그는 가인처럼 살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라멕이 그 사실을 아내들에게 담대하게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하기 위한 위압적인 발언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에게 함부로 대항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창 4:23

더 놀라운 사실은 라멕이 스스로 자신에게 보복하는 자들은 벌이 칠십칠 배일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가인에 대한 보복을 막아 주시려고 가인을 해하는 자는 칠 배의 벌을 받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서 자신의 보호를 위한 보복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칠십칠 배만큼의 끔찍하고 잔인한 보복을 할 것이니 자신을 건드리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회는 정의도 없고, 양심도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창 4:24

하나님 품을 떠나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게 되었고, 영원한 죽음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 1:18 _____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가인이나 라멕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 주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눅 22:42 _____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구속을 성취하셨고, 가장 완벽한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신자는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분의 순종의 삶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

- ① 하나님을 떠난 문명의 비참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소서.
- ②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주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 ③ 대학부가 십자가 복음 아래 날마다 성장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다른 씨

초점

셋을 주심으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심

본문 창세기 4:25~5:3

②²⁵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②²⁶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

①¹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②²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③³아담은 백삼십 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은 아벨을 대체할 수 있는 '씨'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셋'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임명되다' 또는 '대체되다'라는 뜻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 벌어진 일로 말미암아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하와에게 셋의 탄생은 위로와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 4:25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에 다른 를 주셨다 함이며

아벨을 대신함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은혜를 입었던 아벨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했기에 아벨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씨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받으셨기에,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만들기 원하셨지만 가인이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셋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셋의 후손 가운데 노아가 태어나고, 또 노아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의 약속한 후손으로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거꾸로 올라가서 셋을 언급하고 더 나아가 아담과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즉 셋은 택함을 받은 자 아벨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었습니다.

눅 3:23~38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삼십 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의 위는 헬리요
 ...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이요 그 위는 □□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와 이름을 부름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에노스였습니다.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당시 인류는 많이 번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벨과 같은 사람이 없었기에 하나님은 아벨을 대체할 수 있는 '셋'을 주시고, 그의 아들 에노스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창 4:26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의 을 불렀더라

오늘날 셋의 진정한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셋의 믿음의 계보를 따르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모두가 에노스의 후손이요, 셋의 후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기

오늘날의 음란하고 부패한 문화 속에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벨과 셋과 에노스가 걸었던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인의 후손이 걸었던 패역의 길에서 있습니까? 이 세상의 문명의 유익과 성공만을 좇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로운 계보

아담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제공합니다. 이 계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셋을 거쳐서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날았으며’와 ‘죽었더라’입니다. 아담의 혈통적 계보는 낳고 죽는 것을 반복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 외중에도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창 5:1~2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생(生)과 사(死)의 족보 이전에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를 상기시키셨습니다. 그 이유는 셋의 후손을 통해서 당신의 창조 목적을 달성하도록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즉 인간의 연약함과 불결한 계승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셔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보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들, 복을 주신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시겠다는 결심을 표명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은혜와 영광의 찬송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엡 1:6 _____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허락하셨고, 셋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셋의 후손 가운데서도 노아에게 이어지고, 노아의 후손 중에서도 셈의 후손으로 이어지고, 셈의 후손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어지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도 이삭으로,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이후 다윗 왕을 거쳐서, 요셉을 통해 예수님께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 1:1 □□□□과 □□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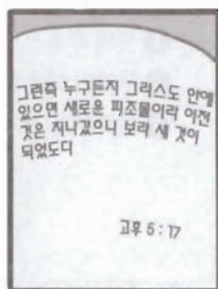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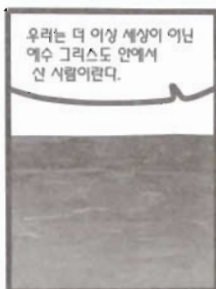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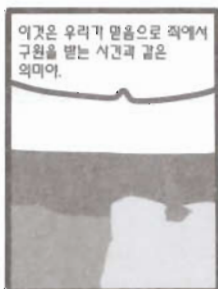
예수님은 이단의 교주들처럼 아무 근거 없이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고, 구약의 약속을 받았고, 이루신 분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고대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기도

- ❶ 셋의 후손으로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 ❷ 구약의 약속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 ❸ 대학부가 십자가 복음 아래 날마다 성장하게 하소서.

모세3

글 · 임동현 / 그림 · 김현민



— —

2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팀 조 이름:

충현의 만나 2014년 3월

Copyright© 2014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동하

편집인 | 강철형

집필진 | 이기영

발행처 | 충현교회 편집국(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7길 40(역삼동) 전화 552-8200)[비매물]